

국제화를 위해 고쳐야 할 예절

호텔서 큰소리·취사·속옷차림 배회
 배낭여행 학생 무임승차
 한국 업체간 과당경쟁...가격 덩핑

공보처 해외공보관에서는 최근 세계 34개 지역 주재 공보관들로부터 수집한 '해외에서의 국가 이미지 실추 사례'를 자료로 내놓았다.

동 자료는 ▲해외 관광객의 문제 ▲해외 진출 기업체의 문제 ▲시찰·연수 공직자의 문제 ▲해외 교포·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의 문제 ▲기타 문제의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국제화를 지향하는 오늘의 우리 국민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들을 사례별로 지적하고 있다.

동 사례들은 비록 전혀 새로운 것들은 아니며, 내놓고 떠들 자랑스러운 것도 못되나,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국제화의 걸림돌임은 숨길수 없는 현실이므로 자괴감을 무릅쓰고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해외관광객의 문제로서 공중도덕 위배와 현지인에 대한 우월감 및 과시욕구 표현, 현지 종교를 무시하고 이단시 하는 행위, 현지 규범·관습 등에 대한 몰이해 등을 들고 있다.

●“한국인 거칠다” 30%

구체적인 사례로서는 호텔·비행기 및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다투는 사례가 많아 한국인은 '거칠다'는 이미지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도박을 금지하는 동남아국가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경찰에 체포된 사례도 있

며, '93년 태국의 한 여론 조사에서 30%가 한국인은 '거칠다' 또는 '무례하다'고 응답한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대표구 등에서의 줄 안서기, 고성방가,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배낭여행 학생들의 무임승차 등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등에는 대중교통수단에 승차권 개찰제가 없음을 악용, 배낭여행 학생들의 무임승차가 단속에서 적발되어 거액의 벌금을 무는 사례도 여름 휴가철에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의 매너 부재

또한 박물관등 사진 촬영 금지 구역내에서의 사진 촬영, 흡연 금지구역에서의 흡연, 유명 관광지에서의 라면·찌개 등의 취사 행위, 호텔 복도에서의 속옷·슬리퍼 차림의 배회 등도 지적되고 있다.

●술집등서 줄부 행세

또한 골프장에서의 매너 부재와 소란 행위로 독일의 모 골프장에는 '한국인 입장 금지'란 팻말이 나붙기도 했으며, 골프보다는 골프치는 모습의 비디오 녹화로 타인의 골프를 방해함으로써 외국인의 눈총을 받은 사례도 지적했다.

동남아 및 중국지역 관광의 경

우 현지인에 대한 우월감과 자기 과시욕 등으로 관광안내원들이나 종업원들을 비하하는 언행을 쓰고 술집과 쇼핑 센터 등에서 고액권 자랑 등 줄부 행세를 하여 외국인의 빈축을 사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본 관광객의 현지인·현지문화 존중 태도와 비교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현지 종교를 무시하거나 이단시하는 경우로서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일부 기독교인이 불상을 파괴하여 현지 경찰에 구속되는 사례도 있었고, 기독교 성지 순례단의 경우 성지에서 다른 관광객들을 의식하지 않는 예배·찬양행위로 타국 관광객의 빈축을 사고 있음도 지적됐다.

둘째, 해외 진출 한국 기업체의 문제로서 현지 근로자에 대한 잘못된 노사관리가 지적되고 있다. 값싼 노임으로 고용한 동남아 등 후진국 근로자에 인한 인종 차별적 언행과 열악한 근로 환경, 차별과 기합 등의 확대가 현지에서 여론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태국·인도네시아 및 중국 천진 등의 현지 근로자에게 체벌을 가한 일과 남미 근해에서 조업중이던 한국 원양어선에서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당한 인도네시아 출신 선원이 해상 탈출하여 현지 언론



에 크게 보도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한국 업체간의 과당경쟁으로서 현지인을 대상으로한 상호비방과 기업체 및 교포 상호간 영업권 또는 상권 침해 분쟁이 잦으며, 특히 동남아의 한국 관광업체간의 가격 덤핑 경쟁도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됐다.

한편, 국제 상거래 질서 문란 행위로서 수입 가격 허위 신고, 위조 상표 부착, 밀수, 뇌물 제공 행위와 일부 기업의 후진국에 대한 유해폐기물 밀수출이 지적됐다. 또한 전자제품·자동차 등 수출품의 애프터 서비스 부재, 기업체간 각종 계약 위반 및 약속 불이행 등으로 한국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외국을 시찰하거나 연수하는 공직자의 문제로서 시찰·연수의 목적보다는 관광에 더 비중을 두는 일정 계획이 지적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의원들이 시청·시의회·유관기관 방문을 ‘관광용’ 일정으로 간주, 사진찍기 등 관광에 열중함으로써 프랑스 파리등 일부지역에서는 방문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와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현지 대사관에 보내는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해외 유명 대학 집단 연수의 경우, 형식적인 청강 연수와 수수료중의 남발 사례도 지적됐다.

해외 저명 인사와 면담시 수준 이하의 내용이나 무성의한 질문으로 상대방의 불쾌감을 초래하거나, 면담 내용보다는 사진찍기에 더 관심을 두는 행위도 지적됐다.

특히, 독일 통일 문제의 관련, 동일한 인사와 기관에 대해 한국의 여러 기관에서 방문,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자료를 중복 수집하는 등 다수의 방문객들이 대동소이한 사항을 중복 질문하여 빈

축을 사는 사례도 지적했다.

또한 의원 및 공직자들이 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와 불요불급한 면담을 고집하는 사례와 현지 기관 및 기업 방문시 구두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귀국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도 지적되고 있다.

넷째, 해외 교포와 유학생 및 장기 체류자의 문제로서, 교포 사회내 상호간의 분열과 갈등, 현지인과의 불화, 유학생의 물의 야기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포 사회내에서 상권·영업권 등의 분쟁과 미국·독일·캐나다 등 교포 밀집 지역에서의 교포 종교단체 난립, 신도와 헌금 유치 경쟁 과열 등이 외국인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성공한 교포들이 현지 사회에 대한 환원이나 기부 행위를 기피함으로써 현지인과 불화를 빚고, 현지인의 생활 방식과 법령을 잘몰라 현지인과의 마찰이 있음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유학생의 현지 불법 취업과 공공 요금 체납 등 사후 처리없이 귀국함으로써 한국인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국립은행은 한국 유학생들이 개인 수표를 남발한 후 귀국, 부도 사태가 빈발함에 따라 한국 학생에 대한 구좌 개설을 불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다섯째, 기타 문제로서 보신탕 등 외국의 혐오 식품 식용, 동남아지역의 뱀탕등 보신 관광, 곰·사슴 등 야생 동물 밀렵 등이 지적됐다. ◎